



## 제2차 한미FTA 정부합동 공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정부 합동 한미 FTA 2차 공청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나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오전 9시〉

정부 주최 한미FTA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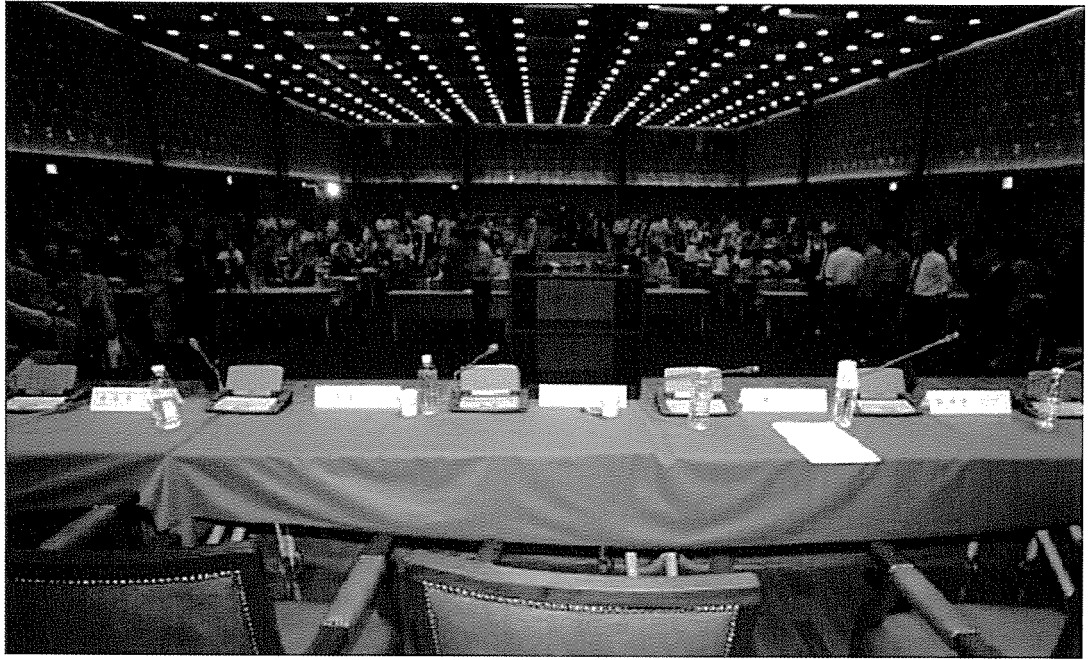
△이날 한미FTA저지 공대위를 비롯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1차협정문 초안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전 11시〉

한미FTA 2차 정부 공청회 열리자 마자 휴회

27일 9시 20분부터 열릴 예정이던 한미FTA 정부합동 공청회가 현재 반대 단체들의 항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자가 공청회의 시작을 알리기 무섭게 영화평론가 협회 양운모 회장과 스크린쿼터축소반대 국민연대 양기환 사무처장은 1차 협정문 초안 공개를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한미FTA 2차 정부공청회가 27일 열리자마자 관련단체들의 항의로 휴회됐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한미FTA 협정문 초안 공개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공청회의 구성인사들이 모두 정부 입맛에만 맞는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1차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청회는 졸속이라며 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도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 자리에서 1차 협정문을 공개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한미FTA 공청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장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섰으나 반대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공청회를 15분간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11시 30분〉

### 한미FTA 2차 정부공청회 오전 세션 무산

주최측은 반대 단체의 반발로 김종훈 수석대표가 10시 경부터 15분간 휴회를 선포하고 11시부터 다시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승호 낙동육우협회 회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추한 꼴을 보기 싫으면 공청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하며 공청회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사회자가 계속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이 회장은 "미국에 다녀 오더니 한국 말을 못 알아듣느냐"며 "추한 꼴을 보고 싶으면 계속 하라"고 진행을 저지했다.

단상에 올라서 "공청회 중단, 1차 협상문 공개" 현수막을 들고 있던 한·미FTA 반대 범국본 회원들도 단상을 계속 점거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사회자는 오전 공청회 세션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FTA반대 범국본 측은 소속 회원들을 공청회장으로 집결시켜 오후 세션을 막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 30분〉

### 오후 세션도 공전중, 김종훈 대표 20분간 휴회 선언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한미FTA 정부합동 공청회도 반대 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2시부터 서비스와 투자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으나, 양기환 스크린쿼터축소반대 사무처장과 박석운 FTA반대 범국본 집행위원장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공청회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양기환 처장은 스크린쿼터 폐지가 문화다양성 협약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먼저 미국에 양보한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전에 무산된 공청회 1차 세션에서 논의하기로 한 무역과 상품 분야를 건너 뛰고 서비스 부문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청회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허 부위원장은 또 발제자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계와 농민단체 측이 공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종훈 대표는 공청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범국본 측이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석운 위원장은 공청회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과 범국본 상황실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공청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공청회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반대 단체 회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중단 요구로 현재 공청회는 4시 현재 휴회된 상태다.

김종훈 대표는 공청회를 연기할 것인지 강행할 것인지 여부를 참석자들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4시 20분에 알려 주겠다고 말한 뒤 공청회장을 빠져 나갔다.

〈오후 5시 30분〉

### 한미FTA 2차 공청회 결국 무산

제 2차 한미 FTA 정부합동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정부관계자들과의 협의 끝에 4시 30분경 "공청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청회 자리를 떠났다.

김 수석대표는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밖의 일"이라며 추후에 다시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측 관계자들은 단상에 올라 1차 협정문 공개와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2차 한미FTA 정부합동 공청회가 무산된 뒤 한미FTA 반대 범국본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